

#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 만족도,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and Marriage Satisfaction  
in Terms of Preparing Their Old Age in Chungcheongnam-do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손희란  
부교수 송선희

Department of Gerontology, Hoseo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Hi Ran Son

Associate Professor : Sun Hee S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and marriage satisfaction on the perception of preparing their old age. We also investigated how socio-demographic factors influence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350 questionnaires obtained from female immigrants living in Chungcheongnam-do. Cronbach's  $\alpha$  tests were conducted for reliability, and regressional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our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evidence of relations among the sub-variables. However, we found attitudes to safety and material pursuit are not related to married female immigrants' preparations for their old ag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ir life style and marriage satisfaction influences their perception of preparing their old age in a positive way. Finally,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marriage status, occupation and income are shown to affect the women's perception of preparing their old age positively.

**주제어(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married female immigrants), 노후준비의식(perception of preparing their old age),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부부관계만족도(marriage life satisfac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1년 현재 5,537,072명으로 총인구의 11.3%, 2020년에는 15.6%인 7,701,125명, 2030년에는 24.3%인 11,810,707명으로 초 고령사회에 도달 한다고 한다(통계청a, 2011). 또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은 2011년 1월 57,869명(남자 32,072 여자 25,797)으로 도내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중 서울(3.6%), 경기(3.2%)에 이어 외국인 주민 비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결혼이민자' 는 2011년 1월 현재 10,254명으로 여자 9,724명남자 530명으로 전년 8,781명 대비 16.8% 증가했으며 시군별로는 천안 2,266명, 아산 1,511명, 당진 852명, 서산 751명, 논산 693명, 공주 683명 순이며, 중국(조선족 포함)4,610명 44.9%, 베트남 2,904명 28.3%, 필리핀 1,044명(10.2%), 일본 599명 5.8% 순이며(통계청b, 2011), 당분간 여성 결혼이민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래에 우리사회의 결혼관이 달라지면서 특수한 경우로 인식되던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자리를 찾아 이주를 계획하거나 경제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으로의 결혼 이주가 새로운 삶과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한 가능한 선택으로 등장하고 있다(한건수, 2006).

오늘날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저 출산, 고령화시대에 직면한 한국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에서 일과 양육의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되는데 특히 충청남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차이로 많은 문제를 안고 이국생활을 하게 되며, 현재의 직업이나 생활을 노후까지 연결하기 힘든 개인적, 사회적인 인식이나 여건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미래를 대비한 노후생활의 준비와 결혼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가족 해체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삶의 자기결정권을 지닌 행위 주체자로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약자 계층으로서 소득이 많지 않고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이용하는 능력이 낮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노후준비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프스타일과 부부관계만족도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적응과 변화에 대한 준비의 필요가 있다.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노후준비의식 연구를 통해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의식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부부관계만족도가 노후준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수들이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 한가?

넷째, 부부관계만족도가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Levy, 1963; Alport, 1965; Lazer, 1968; Wells, 1975; Carmen, 1978)에 의해 개념규정이 이루어져왔다. 이를 종합해보면,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활의 유형, 양식, 행동과 의식을 연합한 생활양식이며, 종합적 상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활동(activity)과 자신의 주위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관심(interest), 그리고 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의견(opinion)의 총체로 나타내어진다(이은희, 2006 재인용).

정신분석학자 Adler(1969)는 'Style of life' 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행동주체로서의 개인을 외부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자가 아닌 능동적이며 목표지향적인 자기 통일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이러한 개인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찾아내어 개인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라이프스타일이다"라고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Engel, BlackWell과 Kollat(1978)는 라이프스타일이란 사람들이 생활하고 시간과 돈을 소비해 나가는 유형이며 그것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간의 특성이며 개인의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정의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생활의식이나 행동 등에 의해 형성되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더 구별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Moschis, 1997),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노후생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고(이행숙, 1996), 중·노년층이 지니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주성, 최수일, 2010).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라이프스타일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선택을 내포하는 노후준비의식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만족도**

Berry(1997)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 등과 같이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적응과정은 개인에게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 문화적 변화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때 우울증, 불안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갑자기 적응해야 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위험한 정신건강상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김도희, 이경은, 2010 재인용).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에 대한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인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Beach et al., 2003), 부부만족은 부부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가운데 하나로서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긍정적 태도로 정의되고 있다(이경성, 2001).

여성 결혼이민자는 확실한 동기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제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오는 순간 기준에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배경과 문화 차이에 부딪히게 되며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부부관계는 가족 내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요하는 관계이다(김태현, 전길양, 1998).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편과의 언어 및 생활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강유진, 2005). 타국에서 겪는 외로움, 나이차이로 인한 부부관계의 어려움, 우울 등에 직면하게 되는데, 부부관계만족이 결혼의 지속과 노후생활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3. 여성결혼이민자의 노후준비의식**

노후준비 의식은 노후의 생활에 대하여 이상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노후생활정도를 노후생활준비의식이라고 한다(이행숙, 1996; 임경숙, 2010). 기존의 연구(배계희, 1988; 임경숙, 2010; 황승일, 2000)에서는 노후준비

의식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준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정서적 준비에 있어 노년기에는 역할 상실로 인하여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이행숙, 2009)고 했다. 노년기에 심리적인 불안에 빠져 무의미한 생활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긍정적인 생활태도 및 인격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Izard, 1993).

둘째, 신체적 준비에 있어 노후대책을 세울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건강문제이며(배계희, 1988), 노년기의 생활을 예측함에 있어서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은 폐경이라는 생물학적 연령 즉,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부모역할의 감소, 출산능력의 상실, 노년기 시작 등 여성특유의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김양이와 이채우(2008)에 의하면 중·노년층의 신체적 준비도가 연령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배문조(2009)는 중년층 중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노후준비의식이 높아 신체적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이 노년기 이전에 연금이나 저축 등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에 있어 노인의 78.6%가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통계청, 2009). 셋째, 경제적 준비에 있어 노후보장문제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이 빈곤한 이유는 우선 젊어서부터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후에는 재취업이 어려우며 자녀의 도움 또한 부족하고 신체적 건강악화로 의료시설의 이용이 증가(Boaz & Muller, 1988)하는 등 노인의 빈곤은 장기화, 만성화, 대량화, 집단화, 가속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성순, 1990).

배문조와 전귀연(2004)은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정도 Likert 5점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 변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과 연령, 여가 필요성인식은 경제적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노후에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건강한 적응을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4.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만족도, 노후준비의식의 관계**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의식과의 관계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일상생활 및 결혼생활을 통하여 표출되는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로서(Bernard, 1975),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여미영(2009)은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생활 독립형, 생활 편의형, 생활 무관심형, 생활 계획형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 계획형이 신체적, 정서적 준비

의식을 가장 잘하고 있는 반면, 생활무관심형이 가장 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준비의식은 생활 계획 형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연구하였다.

이형숙(1996)은 주부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가족중심형, 절약추구형, 적극활동형으로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의식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노후생활준비 행동에 차이가 있고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높을수록 준비행동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김주성과 최수일(2010)은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도의 하위요인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통해 생활 독립 형과 생활무관심형은 경제적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밝힘으로써 노후를 위한 준비 패턴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의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만족 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도희, 이정은, 2005; Weiss & Avid, 1978)를 보고하고 있고,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만족 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김범준, 박영숙, 전영민, 2005; Renne, 1970; Weiss & Avid, 1978)고 한다. 가족주기 상 노년기가 점차 연장되면서 예전보다 노부부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노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시 되는 시기이다. 이는 노년기의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우선의 가족 부양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권오균, 강금희, 2009).

특히 여성노인의 노후준비정도는 남성노인에 비해 더욱 열악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부부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여성의 수명이 길어 독거노인이 될 수 있는데, 독거노인의 경우는 혼자 사는데서 오는 심리적, 정서적, 건강상 문제가 더 증대되고 심화된다(김미라, 2004).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나이차이로 인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노후준비의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결혼이민여성은 남편과의 언어 및 생활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강유진, 1999). 또한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접촉으로 본다면 이러한 접촉이 정신건강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Menjivat & Salcido, 2002).

일반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식정도과 노년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전귀연, 배문조, 2010; 최성재, 2009)를 살펴보면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위축, 가족관계, 건강 문제 등에 대해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강유진(2005)은 30-50대의 노후준비인식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노후준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높은 인식 정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하였고,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실제로 노후준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제약이 있음(전귀연, 배문조, 2010)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노후준비의식 연구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주관적 연구(임경숙, 2010)가 있을 뿐이다. 부부관계만족도는 다문화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외에 다문화가정 특성 변인이 추가된다. 연령차이, 결혼중개업소 이용 유무, 문화적응태도(변미희, 강기정, 2010; 임경숙, 2010)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관련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식(2002)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이 오래 살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비중을 크게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후준비의식은 현재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이 삼 십년 정도의 미래 문제로서 앞으로 노후생활은 현재생활에 비추어 신체상태, 경제적 준비정도, 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김양이, 이체우, 2008 재인용).

따라서 부부관계만족도와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적인 관계와 소통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관계는 소속감과 안정감, 만족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노년기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라이프스타일과 부부관계 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과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조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만족도, 노후준비의식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의 공주시, 아산시, 홍성군, 연기군, 당진군,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학당에 출석하거나 방문교육을 이용하며 한국에 시집 온 지 1년 이상 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11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졌다. 센터별로 50부씩 350부를 직접 배포하였고,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48부를 제외한 3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충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학당에서 1년 이상 공부하는 대상자 중 1~2단계 초급과정

은 제외하고 3단계~5단계까지의 중급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있는 대상을 설문조사하였다. 의사소통이 힘든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의 유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통역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한국어가 서툴러 설문지 작성에 힘든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하여 모국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 3. 조사도구

####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설문지는 최수일과 곽종형(2007), 김주성과 최수일(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척도가 없어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항목을 이주여성에게 맞게 수정하여 구성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건강 및 여가추구 5문항, 외향적 도전 추구 5문항, 안전 및 물질추구 5문항, 보수적 가치추구 5문항 등 4가지 20문항의 하위변인으로 구성 되었다. 김주성과 최수일(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건강 및 여가추구 .901, 외향적 도전 추구 .886, 안전 및 물질 추구 .872, 보수적 가치추구 .85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각각의 신뢰도는 건강 및 여가추구 .660, 외향적 도전추구 .673, 안전 및 물질추구.640, 보수적 가치 추구 .607로 선행연구보다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항목 중 외향적 도전 추구 5번 문항과 보수적 가치추구 5번 문항은 척도의 신뢰도가 낮아 삭제하고 분석하였다.

#### 2)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설문지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남주(2009), 임경숙(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남편이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부부사이의 친밀감, 부부의 성생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남편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정도,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정도과 같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남주(2009) 연구에서의 부부관계만족 신뢰도는 .889, 임경숙(2010)의 연구에서는 .90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의 신뢰도는 .827로 나타났다

#### 3) 노후준비의식

노후준비의식의 설문지는 배계희(1988)와 황승일(2000), 임경숙(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으로 정서적 준비의식 9문항, 신체적 준비의식 9문항, 경제적 준비의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그렇지않다'를 1점, '그렇

지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그렇다'는 5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 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배계희(1988)의 연구에서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정서적준비 .81 신체적 준비 .82, 경제적 준비 .74 이며, 임경숙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준비도 .754, 신체적준비 .788 경제적준비 .81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서적 준비도는 .783, 신체적준비 .785 경제적준비도는 .812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자료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라이프스타일, 결혼관계 만족도, 노후준비의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하였고,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Duncan/T3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의 차이

#### 1) 정서적 준비의식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준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출신국가( $F = 2.702, p = .046$ ), 연령( $F = 4.337, p = .014$ ), 배우자와 나이차( $F = 10.533, p = .000$ ), 교육수준( $F = 11.746, p = .000$ ), 배우자와의 만남( $F = 7.512, p = .000$ ), 결혼동기( $F = 11.266, p = .000$ ), 자녀수( $F = 2.867, p = .037$ ), 배우자의 교육수준( $F = 6.748, p = .001$ ), 한 달 수입( $F = 3.166, p = .044$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결혼생활기간, 현재 동거인, 배우자의 직업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정서적 준비는 출신국가에 따라 중국이 기타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31세 이상이 25세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나이차에 따라 10세 미만인 경우가 10세-15세 미만, 15세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만남은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와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 기타가 결혼중개업체보다 높았다. 결혼 동기에 따라서는 '남편을 사랑해서'가 기타('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서는 2명이 1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교 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 중학교이하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표 1〉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준비의식 차이

	정서적 준비 의식	N	M	SD	F	Duncan/ T3
출신국가	중국(A)	81	3.5718	.56358	2.702*	A > D
	베트남(B)	108	3.4053	.43942		
	필리핀(C)	63	3.5185	.47519		
	기타(D)	47	3.3522	.58718		
	전체	299	3.4660	.51166		
연령	25세 이하(A)	43	3.2997	.40611	4.337*	C > A
	26-30세(B)	130	3.4297	.49432		
	31세 이상(C)	126	3.5513	.55906		
	전체	299	3.4622	.51744		
배우자와 나이차	10세 미만(A)	86	3.6678	.51741	10.533***	A > B = C
	10세-14세(B)	135	3.3895	.46275		
	15세 이상(C)	74	3.3465	.55571		
	전체	295	3.4598	.51946		
교육수준	중학교이하(A)	108	3.2766	.54160	11.746***	B = C > A
	고등학교(B)	114	3.5786	.43507		
	대학교이상(C)	73	3.5531	.52890		
	전체	295	3.4617	.51766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중개업체(A)	119	3.2997	.51926	7.512***	B = C = D > A
	가족 또는 친척 소개(B)	81	3.5307	.51507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C)	52	3.5641	.44053		
	기타(D)	46	3.6498	.49789		
	전체	298	3.4627	.51826		
결혼동기	살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A)	91	3.2802	.50548	11.266***	B > C > A
	남편을 사랑해서(B)	137	3.6004	.47906		
	기타(C)	68	3.4308	.54087		
	전체	296	3.4632	.51907		
자녀수	없다(A)	47	3.5092	.57811	2.867*	C > B
	1명(B)	124	3.3697	.54650		
	2명(C)	105	3.5594	.46267		
	3명이상(D)	18	3.3781	.38832		
	전체	294	3.4603	.51997		
배우자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A)	66	3.3451	.45547	6.748**	C > A = B
	고등학교(B)	167	3.4248	.50552		
	대학교 이상(C)	64	3.6534	.55851		
	전체	297	3.4564	.51670		
한달 수입	150만원 이하(A)	115	3.4499	.48311	3.166*	C > A = B
	151만원-200만원(B)	121	3.4034	.49685		
	201만원 이상(C)	61	3.6047	.59956		
	전체	297	3.4627	.51817		
한국체류기간 (결혼생활기간)	2년미만(A)	77	3.4497	.54291	5.166**	A,B,C < D
	2~5년 미만(B)	120	3.4062	.51469		
	5년~8년 미만(C)	74	3.4322	.45698		
	8년 이상(D)	26	3.8317	.51148		
	전체	297	3.4612	.5189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준비의식 차이

신체적 준비 의식		N	M	SD	F	Duncan/ T3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중개업체(A)	119	3.2067	.67660	4.254**	B > A
	가족 또는 친척 소개(B)	80	3.4861	.52007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C)	52	3.3894	.55874		
	기타(D)	46	3.4638	.56282		
	전체	297	3.3538	.61005		
배우자의 직업	단순노무직(A)	74	3.3527	.54674	5.341***	B = E > C = D
	판매서비스, 사무원 · 공무원(B)	55	3.5657	.54108		
	관리직, 전문가, 사업가(C)	61	3.2204	.69699		
	농업, 임업, 수산업(D)	67	3.1830	.62624		
	기타(E)	40	3.5760	.49572		
	전체	297	3.3568	.60885		

\*\* $p < .01$ , \*\*\* $p < .001$

으며 한 달 수입은 201만 원 이상이 150만 원 이하나 151-200만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체류기간에 따른 노후준비의식 중 정서적 준비의식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년 이상 거주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2년 미만, 2-5년 미만, 5-8년미만, 거주한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만남에 있어 구체적으로 남편을 사랑해서의 변수가 높을수록,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가 낮을수록, 배우자의 나이차가 10세미만으로 낮을수록,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정서적준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신체적 준비의식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준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배우자와의 만남( $F = 4.254, p = .006$ ), 배우자의 직업( $F = 5.341, p = .000$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출신국가, 연령, 배우자와 나이차, 교육수준, 결혼생활기간, 결혼동기, 자녀수, 현재 동거인, 배우자의 교육수준, 한 달 수입, 한국체류기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표 2〉에서는 삭제하였다.

즉, 신체적 준비의식의 경우 배우자 만남은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가 결혼중개업체보다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직업에서는 판매서비스 · 사무원 · 공무원과 기타가 관리직 · 전문가 · 사업가, 농업 · 임업 · 수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양이와 이재우(2008)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연령, 나이차, 결혼동기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결혼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은 젊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이어서 신체적 준비의식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지 않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3) 경제적 준비의식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준비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출신국가( $F = 3.711, p = .012$ ), 배우자와의 만남( $F = 3.065, p = .028$ ), 결혼동기( $F = 7.525, p = .001$ ), 현재 동거인( $F = 2.855, p = .037$ ), 배우자의 교육수준( $F = 8.877, p = .000$ ), 한 달 수입( $F = 6.320, p = .002$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 배우자와 나이차, 교육수준, 결혼 생활기간, 자녀수, 배우자의 직업, 한국체류기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준비의식은 출신국가에 따라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기타국가보다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만남은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가 결혼중개업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동기의 경우 ‘남편을 사랑해서’가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와 ‘기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인의 유형에서는 시부모와 사는 가정, 남편과 사는 가정, 남편과 자녀가정, 시부모와 남편,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 기타가정보다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수입의 경우 201만 원 이상 가정이 150만 원 이하, 151-200만원인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화(2009)의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이나 자녀의 수가 경제적 노후준비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혼중개업체가 아닌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결혼한 여성의 경제적 준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학력과 한 달 수입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준비의식 차이

	경제적 준비 의식	N	M	SD	F	Duncan/ T3
출신국가	중국(A)	81	3.2787	.69506	3.711*	A = B = C > D
	베트남(B)	107	3.3525	.48715		
	필리핀(C)	62	3.3018	.60474		
	기타(D)	47	3.0152	.57393		
	전체	297	3.2684	.59591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중개업체(A)	119	3.1633	.63188	3.065*	B > A
	가족 또는 친척 소개(B)	80	3.4125	.59249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C)	51	3.2185	.44111		
	기타(D)	46	3.3230	.63634		
	전체	296	3.2650	.59953		
결혼동기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A)	91	3.1287	.67528	7.525**	B > A = C
	남편을 사랑해서(B)	135	3.4095	.57905		
	기타(C)	68	3.1639	.46783		
	전체	294	3.2658	.60102		
현재 동거인	시부모, 남편(A)	54	3.3245	.72750	2.855*	A = B = C > D
	남편+자녀(B)	146	3.3213	.56229		
	시부모+남편+자녀(C)	86	3.1728	.54260		
	기타(D)	9	2.8413	.61629		
	전체	295	3.2639	.59750		
배우자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A)	66	3.1255	.58979	8.877***	C > A = B
	고등학교(B)	165	3.2130	.56212		
	대학교 이상(C)	64	3.5246	.62817		
	전체	295	3.2610	.59855		
한 달 수입	150만원 이하(A)	113	3.2094	.60084	6.320**	C > A = B
	151만원~200만원(B)	121	3.2031	.55871		
	201만원 이상(C)	61	3.5066	.62039		
	전체	295	3.2683	.59863		

\* $p < .05$ , \*\* $p < .01$ , \*\*\* $p < .001$

2.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 만족도가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부부관계 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정서적 준비의식, 경제적 준비의식에서는 건강 및 여가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안전 및 물질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준비의식에서는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 및 물질 추구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라이프스타일과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라이프스타일과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으면 그 만

큼 노후대비가 낮아진다는 것과 안전 및 물질추구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부부관계 만족도가 노후준비의식 하위영역인 정서적 준비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준비에 대한 회귀분석이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 Leverage 값, 공차한계 (Tolerance), 상승변량(VIF) 값을 산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 값은 1.578로 정상범위(0-2) 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0.225-24.574, 0.000-0.058,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01-0.082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



〈표 4〉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과의 상관관계

		정서적준비 의식	신체적준비 의식	경제적준비 의식
라이프 스타일	건강 및 여가추구	.375**	.378**	.416**
	외향적 도전 추구	.506**	.308**	.331**
	안전 및 물질 추구	.210**	.104	.173**
	보수적 가치 추구	.415**	.242**	.378**
부부관계 만족도		.520**	.370**	.427**

\*\* $p < .01$

(Tolerance)는 0.764-0.931, 상승변량(VIF)은 1.074-1.309로 각각 정상범위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변인과 부부관계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안전 및 물질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를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46.3%였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부부관계 만족도( $t = 6.207, p = .000$ )가 가장 높았고, 외향적 도전추구( $t = 5.676, p = .000$ ), 건강 및 여가 추구( $t = 5.330, p = .000$ ), 보

수적 가치 추구( $t = 3.569, p = .000$ )순이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준비는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영역 중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의 하위변인 분석을 위하여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안전 및 물질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를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25.9%였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건강 및 여가 추구( $t = 5.807, p = .000$ )가 가장 높았고, 부부관계 만족도( $t = 4.303, p = .000$ ), 외향적 도전추구( $t = 2.136, p = .033$ )순이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신체적 준비는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영역 중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준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부부관계 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경제적 준비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경제적 준비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이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 Leverage 값, 공차한계(Tolerance), 상승변량(VIF) 값을 산출하였다. 잔차의

〈표 5〉 라이프스타일 및 부부관계 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F	R <sup>2</sup> 변화량
정서적 준비의식	건강 및 여가 추구	.177	.236***	50.824***	.463
	외향적 도전 추구	.244	.273***	50.824***	
	안전 및 물질 추구	.032	.035	50.824***	
	보수적 가치 추구	.170	.173***	50.824***	
	부부관계 만족도	.273	.303***	50.824***	
신체적 준비의식	건강 및 여가 추구	.267	.302***	20.575***	.259
	외향적 도전 추구	.128	.121*	20.575***	
	안전 및 물질 추구	-.013	-.012	20.575***	
	보수적 가치 추구	.086	.074	20.575***	
	부부관계 만족도	.262	.247***	20.575***	
경제적 준비의식	건강 및 여가 추구	.282	.324***	32.423***	.356
	외향적 도전 추구	.093	.089	32.423***	
	안전 및 물질 추구	.026	.024	32.423***	
	보수적 가치 추구	.230	.020***	32.423***	
	부부관계 만족도	.271	.260***	32.423***	

\* $p < .05$ , \*\*\* $p < .001$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 값은 1.905로 정상범위 (0-2) 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0.227-24.529, 0.000-0.138,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01-0.082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 (Tolerance)는 0.763-0.934, 상승변량(VIF)은 1.071-1.311로 각각 정상범위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및 부부관계 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의 하위 영역인 경제적 준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안전 및 물질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를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건강 및 여가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35.6%였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건강 및 여가 추구( $t = 6.681, p = .000$ )가 가장 높았고, 부부관계 만족도( $t = 4.845, p = .000$ ), 보수적 가치 추구( $t = 3.804, p = .000$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준비는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영역 중 건강 및 여가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경제적 준비가 높았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 1) 라이프스타일과 정서적 준비의식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의식의 하위 영역인 정서적 준비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변인을 투입하였다. 즉, 변인1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고, 취미나 여가생활, 다문화센터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건강 및 여가 추구'라 하였다. 변인2는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향적 도전 추구'라고 하였고, 변인3은 물질적 소유물이 성공의 표시라고 생각하며, 인생에서 재산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 및 물질 추구', 변인4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좋고, 집안의 대소사를 가족과 함께 의논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수적 가치 추구'라 명하였다.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39.3%였다. (김주성, 최수일, 2010)의 연구에서는 60.965%였으며 이들 변인중에서 외향적도전추구영역이 가장 높았고 요인분석과정에서 요인값 0.5이하를 나타낸 2문항(외향적도전추구1문항, 보수적가치추구1문항)이

제거되었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외향적 도전추구( $t = 7.430, p = .000$ ), 보수적 가치 추구( $t = 5.305, p = .000$ ), 건강 및 여가 추구( $t = 5.344, p = .000$ )순이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준비의식은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영역 중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수일과 곽종형(2007)과 김주성과 최수일 (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 2) 라이프스타일과 신체적 준비의식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의식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변인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안전 및 물질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를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21.3%였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건강 및 여가 추구( $t = 5.879, p = .000$ ), 외향적 도전추구( $t = 3.497, p = .001$ ), 보수적 가치 추구( $t = 2.601, p = .010$ ) 순이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준비는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영역 중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라이프스타일과 경제적 준비의식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의식의 하위 영역인 경제적 준비의 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라이프스타일의 하위변인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안전 및 물질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를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30.5%였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면 보수적 가치 추구( $t = 5.271, p = .000$ )가 가장 높았고, 건강 및 여가 추구( $t = 6.700, p = .000$ ), 외향적 도전 추구( $t = 3.193, p = .002$ )순이었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영역 중 건강 및 여가 추구, 외향적 도전 추구, 보수적 가치 추구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경제적 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부부관계 만족도가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

〈표 6〉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의식간 중다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F	R <sup>2</sup> 변화량
정서적 준비의식	건강 및 여가 추구	.188	.250***	47.832***	.393
	외향적 도전 추구	.324	.362***	47.832***	
	안전 및 물질 추구	.034	.037	47.832***	
	보수적 가치 추구	.257	.260**	47.832***	
신체적 준비의식	건강 및 여가 추구	.278	.314***	19.908***	.213
	외향적 도전 추구	.205	.194**	19.908***	
	안전 및 물질 추구	-.011	-.010	19.908***	
	보수적 가치 추구	.169	.145*	19.908***	
경제적 준비의식	건강 및 여가 추구	.292	.337***	32.199***	.305
	외향적 도전 추구	.173	.167**	32.199***	
	안전 및 물질 추구	.027	.025	32.199***	
	보수적 가치 추구	.316	.277***	32.19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부부관계 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간의 중다회귀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F	R <sup>2</sup> 변화량
정서적 준비의식	부부관계 만족도	.469	.520***	110.929***	.270
신체적 준비의식	부부관계 만족도	.392	.370***	47.307***	.137
경제적 준비의식	부부관계 만족도	.445	.427***	66.623***	.183

\*\*\* $p < .001$

부부관계만족도를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정서적 준비 의식, 신체적 준비의식, 경제적 준비의식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준비의식은 27.0%, 신체적 준비의식은 13.7%, 경제적 준비의식은 18.3%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3개 하위 영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숙(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와 노후준비의식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 = .017, p = .801$ ),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노후준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충청남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부부관계만족도가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준비의식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 및 여가 추구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부부관계 만족도, 외향적 도전추구 순이었다. 신체적 준비

의식에서는 안전 및 물질 추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강 및 여가 추구, 부부관계 만족도, 외향적 도전 추구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준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점과 10세 이상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남편의 사별 후 여성홀로 자녀의 양육과 노후를 맞이하면서 홀로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 동화되어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인 출신국가, 연령, 배우자와 나이차, 교육수준,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동기, 자녀수, 배우자의 교육수준, 한 달 수입, 한국체류기간 등에 따라라도 노후준비의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혼중개업소 이용여부와 연령차이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변미희, 강기정, 2010),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전제로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노후준비의식은 라이프스타일 같은 개인의 심리관련 요인과 부부관계만족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그러한 심리요인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면 언어차이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 삶의 질이 높게 적응, 정착하게 되고 노후준비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많지 않고, 전국표본조사가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노후 준비 의식에 대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의 제한적 구성이 아닌 전국적 표집을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노후준비의식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태도에 관한 변인의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설명력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4(2), 61-80.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대 · 40대 ·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6(4), 159-174.

권오균, 강금희(2009).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37-145.

김도희, 이경은(2010).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 5-25.

김미라(2004).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범준, 박영숙, 전영민(2005). 경제적 어려움, 대처행동, 가족간 의사소통이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0(1), 37-59.

김성순(1990).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김승권, 김유경, 조애정,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외(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법무부 ·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0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양이, 이재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수준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김주성, 최수일(2010). 중 ·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

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상담학회지**, 39(1), 195-243.

김태현, 전길양(1998).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문조(2009). 중년기성인의 노인의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배문조,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변미희, 강기정(2010). 다문화가족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련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2), 127-141.

신경희, 양성은(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신은식(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 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미영(2009).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6(2), 97-119.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9-1.

이은희(2006). 중,고등학교 여학생 라이프스타일,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복태도와와의 관계연구.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8(4), 85-102.

이정화(2009). 광주 · 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20(2), 275-289.

이행숙(1996). 주부의 노후생활준비의식, 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숙(2009). 직장근로자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숙(2010).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노후생활 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희경(2010). 중노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관리 효과와 색채기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귀연, 배문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3-24.

최성재(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329-362.

최수일, 광종형(2007). 실버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

- 기능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3), 334-340.
- 통계청(2009). **2009년 고령자통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11a). **2011년 충청남도 혼인통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11b). **2011년 인구·가구통계**. 서울: 통계청.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95-243.
- 한남주(2009). 다문화가정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인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ler, A.(1969). The collected clinical works of Alfred Adler, Volume 6-Journal Articles: 1927-1931, USA : *Alfred Adler Institute*, 2006. 10. 26.
- Bartos, R.(1980). Over 49: The invisible consumer market, *Harvard Business Review*, 58(1), 140-148.
- Beach, S., Katz, K. S., & Brody, G. H.(2003). Per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ernard, J.(1975). Note on changing life 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37, 561-572.
- Boaz, R. F., & Muller, C. F.(1988). Does having more time after retirement change the demand for physician services. *Medical Care*, 27, 1-15.
- Engel, J. F., BlackWell., R. D., & Kollat, D. P.(1978). D. P. Consumer behavior, 3rd ed. Hinsdale, IL : The Drrtden Press.
- Izard, C. E.(1993). Organizational and motivational functions of discrete emotions, In. M. Lewis & J. Haviland(Eds). *handbook of New York* : Guilford.
- Renne, K. S.(1970). Correlates of dis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54-67.
- Menjivat, C., & Salcido, O.(2002).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 Society*, 16(6), 898-920.
- Moschis, G. P.(1997). "Targeting the mature marke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4(4), 282-293.
- Weiss, R. L., & Avid, B. M.(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s predictors of physical health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379-1384.

접 수 일 : 2011년 7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2일